

서·남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체에 대한 고찰

정홍열*

《목차》

- I. 서론
- II.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 III. 걸프 협력 위원회(GCC)
- IV. 아랍 협력 위원회(ACC)
- V. 결론

I. 서론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접국과 경제통합 방식을 선택한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들어서는 Benelux 경제동맹과 ECSC, EFTA 등이 그 예로 꼽히며, 1960년대 결성된 중미공동시장(CACM), 중남미 자유무역 연합(LAFTA), 동남아연합(ASEAN), 중앙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및 카리브 자유무역 협정 등도 동일한 맥락에서 결성되었던 통합체들이다.

이러한 인접국간에 경제통합체 결성 추세는 최근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경제통합 추세에서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02년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그 동안의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본격적인 경제통합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기조로 자세를 바꾸었고,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과 연속적으로 FTA를 체결했다. 이렇게 정부가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 기조를 완전히 바꿈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논문과 서적들이 많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은 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몇몇 경제공동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다양하게 존재하는 세계 경제공동체에 대한 사례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지역에 있는 경제통합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본다. 이에 2장에서는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모여 결성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을, 그리고 3장에서는 걸프협력위원회(GCC)를, 그리고 4장에서는 회원국 간의 내분으로 단명한 아랍협력위원회(ACC)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 협정조약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검토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이들 통합체에의 미래 발전 방향과 우리나라가 이들 통합체에 어떠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본다.

II.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남아시아 국가들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과거 4-50년간 상당히 괄목한 발전을 하였다. 특히 1960년과 1970년대에는 평균 경제성장률 5.5%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Saradgi, 2007, p. 51). 이 지역에서 결성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최초로 남아시아 7개국에 모여 결성한 경제 및 정치 연합체이다. 연합체 회원국들의 총면적은 5,143,733Km²이며 인구는 약 16억 2천만 명으로, 인구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라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회원국 총 GDP는 1조 5,254억 달러(2008년 명목 GDP)로,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1천 달러 이하의 저개발국들이 모인 공동체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방글라데시 대통령 자울 라만(Ziaur Rahman)이 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무역블럭(trade block)을 만들자는 제안을 최초로 했었고, 이에 부응해 1981년 4월 콜롬보에서 7개국 외무장관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아시아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모임을 더 가진 후 1983년 8월, 뉴델리에서 만나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RC: South Asian Regional Cooperation)를 결성하기로 선언했다.¹⁾ 그리고 1985년 12월 7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에서 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 7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역협력체에 대한 헌장(Charter)을 채택하면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이 출범하였다.

SAARC의 설립 목적은 헌장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연합체를 통해 ①서아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②지역의 경제 성장,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가속화 시키며,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③서남아시아 국가들 간에 집단적 자립(collective self-reliance)을 촉진·강화시키고, ④상호신뢰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 및 인정하며, ⑤경제, 사회, 문화, 기술 및 과학 분야에 상호 지원과 공동 연구를 증진하고, ⑥다른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⑦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국제포럼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⑧비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지역 및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²⁾

회원국들 간의 상호협력은 동일한 주권과 지역적 통합, 정치적 독립, 회원국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하여 실행하며, 기존의 상호간 혹은 다자간 협정하의 준수사항은 서로 보완하거나 일치시키기로 하였다³⁾. 또한 SAARC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국 간에 논쟁적인 이슈들은 SAARC의 논의 주제에

1) 1981년과 1983년 외무장관 모임에서는 9개 분야에서의 통합 활동 프로그램(IPA: Integrated Programme of Action)도 시행하기로 했었다. 이때 확정된 9개 분야는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 기상학(Metrology), 건강 및 주민 활동, 운송, 우편서비스, 과학 및 기술 그리고 스포츠, 예술, 문화 분야이다.

2) Article 1 in *Chart of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1985)*

3) Hussain "SAARC 1985-1995: A Review and Analysis of Progress," in Eric Gonsalves and Nancy Jetly ed., *The Dynamics of South Asia: Regional Cooperation and SAARC*, (New Delhi: Saga publications, 1999), p.21

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SAARC를 운영하는 조직은 각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정상회의, 외무부장관들이 만나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장관회의, 외무부차관들이 모임을 갖고 협력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상설위원회, 기타 분야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와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의(Meetings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는 1년에 한번 개최되며, 연맹의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연맹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 협력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검토한다. 더불어 새로운 협력분야를 검증하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도(mechanism)를 만든다.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는 장관회의와 같이 1년에 2회 개최되며 SAARC의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검토·조정하며, 연합체가 재정지원하고 편성한 각 종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또한 분야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호협력 할 새로운 분야도 찾아내며, 필요하면 언제나 모임을 갖고 수시로 장관회의에 보고한다. 상설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원로 직원(officials)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위원회(Programming Committee)의 지원을 받는데, 이 위원회는 사무국 예산을 검토하고, 여러 활동의 실행 날짜를 확정하며, 상설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들을 수행한다. 사무국(Secretariat)은 1987년 1월 카트만두에 설립되었는데, 사무총장은 3년 임기로 회원국 이름의 알파벳 순번으로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에서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과 일반 직원, 기능적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는데 현재 7명의 사무국장(Director)이 있다. 사무국은 주로 ACC에서 결정한 사항의 수행여부를 감시·조정하며, 회의를 준비하고, 협력체와 회원국 간의 또는 회원국가와 다른 지역통합체들 간의 대화 채널로서 역할도 수행한다.⁴⁾

제1차 정상회담은 SAARC 현장이 체결되었던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되었고, 2차 회담은 1986년 벵골라에서, 3차 회담은 1987년에 카트만두에서, 4차 회담은 1988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었었다. 그 후 정상회담은 매년 개최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 2005년 13차 정상회담이 다카에서, 2007년에는 14차 정상회담이 뉴델리에서,

4)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retariat*, VIII, 11,17 (India: Bangalore)

그리고 2008년에는 스리랑카의 콜롬보(Colombo)에서 15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SAARC가 결성되어 발전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연합체의 활동이 기획, 실행되었는데, 특히 1991년 12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6차 정상회담에서는 1997년까지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특혜무역협정(SAPTA: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을 설립하기 위한 정부 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Group)을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1993년 4월 다카(Dhaka)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지역 내 무역 관세를 점차 줄이는 목적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특혜무역협정(SAPTA: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이 조인되었다. 그 후 1995년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원래 계획한 1997년보다 2년 빨리 SAPTA 협정을 발효시켰다. 이 SAPTA 협정에서는 ①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경제적, 산업적 발전 수준과 대외무역 형태, 무역 및 관세정책 및 제도 등을 고려해 모든 국가들에 동일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전체적인 호혜주의와 상호 의존(mutuality)의 장점을 취하고, ②단계별로 관세 개혁을 협상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계를 확대 및 개선시키고, ③회원국내 저개발국에 특별히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구체적 특혜제도에 합의하고, ④저개발국의 원료, 반가공, 완전 가공 형태의 모든 생산품, 공산품,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SAPTA하에서 4차에 걸쳐 5,500개 상품을 포함하는 무역협상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그 해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16차 각료회의에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창설에 필요한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1996년까지 정부간 전문가 그룹(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8년 7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COE: Committee of Experts)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이 지역 내 자유무역지대(SAFTA)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나, 회원국들 간에는 이러한 FTA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많았다. 인도는 몰디브와 네팔, 부탄, 스리랑카와 이미 여러 무역협정을 맺고 있었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간에도 비슷한 무역협정이 있었다. 더구나 1999년 11월 네팔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1차 SAARC 정상회의

가 인도-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분쟁 및 파키스탄 내 군부 쿠데타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무기한 연기되는 등 회원국 간의 갈등도 커졌다.⁵⁾ 그러나 2000년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화해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됨에 따라 SAARC내 전문가 위원회(COE)가 몇 차례 모여 SAFTA 협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 초안이 2004년 1월 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12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체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 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이 아닌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3국은 2008년까지 기존의 관세를 20%로 줄이고, 그 후 2013년까지(스리랑카는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0-5%까지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신 기존 관세가 20% 이하인 상품들은 매년 10%씩 2년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반면 역내 최빈국인 부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3국은 2008년까지 기존의 관세를 30%내로 줄이고, 그 후 유혜기간을 추가적으로 3년을 더 주어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0-5%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30%이하의 상품들은 처음 2년간 매년 5%씩 줄이고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감축 일정에 따르면 SAFTA 하에서 최빈국이 아닌 회원국들은 2013년까지, 최빈국은 2016년까지 회원국 간의 교역 상품 모두가 무관세로 되게 된다⁶⁾. 파키스탄은 SAFTA에 서명하였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⁷⁾.

이 12차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도 많이 다루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남아시아 국민들의 후생과 복지에 핵심이 되는 인구의 안정, 여성의 권익향상 (empowerment of women), 청소년 이동(Youth Mobilization),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건강 및 영양 개선 (Promotion of health and nutrition), 어린이 보호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SAARC 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체결한

5)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및 카슈미르를 둘러싼 영토분쟁, 인도-방글라데시간 갠지스강을 둘러싼 수리권 분쟁 등이 역내 갈등의 대표적인 예임.

6) Mukherji, "SAFTA: Addressing the Unfinished Agenda,"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The Road Ahead*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p.87.

7) 자세한 SAFTA 성과는 Chakraborty and De "Trade Performance and Integration Experience of SAFTA: A Review of Issues,"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8) 참조

것이다. 또 이 회담에서 정상들은 남아시아의 더 확대된 번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남아시아 경제를 통합하기로 하고, 무역·재정·투자의 핵심 분야에 상호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 경제연합(South Asian Economic Union)을 초기에 기획하고 최종적으로 실현시키는 권고안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책임을 SAARCFINANCE⁸⁾에 맡겼으며, 아시아개발은행(South Asian Development Bank)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였다. 지역 내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남아시아 빈곤완화 독립위원회(ISACPA: the Independent South Asian Commission on Poverty Alleviation)에 다음 정상회담까지 빈곤감소 교육, 건강 및 환경 분야에 다음 5년 동안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연합체 발전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통합 활동 프로그램(IPA: Integrated Programme of Action)의 경우 상호협력의 핵심 분야로 간주되어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총 7개로 정리되어 기술위원회(the Technical Committees)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⁹⁾ 최근에는 고위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발족, 정보, 통신 기술, 생명공학(biotechnology), 지적재산권, 관광 및 에너지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상회담에서 협력분야의 확대와 지역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SAARC의 공동 활동 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한편 SAARC는 통상적인 연합체 활동 이외에도 매년 특별한 의제를 정해 추진해왔는데 환경보호나 문맹퇴치, 빈곤, 청소년, 여자어린이 등이 과거의 주요 의제였으며, 2004년에는 결핵(TB), HIV, AIDS, 2006년에는 남아시아 관광 등이 주요 의제였다.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의제도 있는데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여자어린이(Girl Child)가,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은 어린이 권리(the Rights of the Child)가 주요 실천의제로 정해졌다.

2005년 11월 13일에는 아프가니스탄이 SAARC 그룹에 들어와 2007년 4월 3일에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출범 22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국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2006년

8) SAARCFINANCE는 중앙은행장과 각 회원국의 재무국장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재정에 관련된 문제의 상호협력을 논의한다.

9) 7개 분야는 1)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2) 보건 및 인구활동(population activities), 3) 여성, 젊은이(Youth), 어린이 4) 환경 및 산림 5) 과학, 기술 및 기상학, 6) 인적 자원 개발, 7) 운송이다.

4월에는 미국과 한국이 SAARC에 옵서버(Observer) 자격을 요청했고, 6월에는 EU가 옵서버 자격을 공식으로 요청해 2006년 8월 SAARC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이란도 옵서버 자격을 요청했다. 이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와 기본적으로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회원국 가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미얀마와 중국도 SAARC의 회원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미얀마는 2008년 5월 정회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III. 걸프 협력 위원회(GCC)

걸프협력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2008년 기준 총면적이 2,672,700km²에 이르고, 인구는 40,338,200명, 총 GDP는 1조 1032억 달러(2008년 명목 GDP기준), 1인당 GDP는 2만 2천 달러 정도로 부국들의 모임이다.

1979년 이란의 팔라비 정권 붕괴와 이슬람 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이들 국가와 걸프 만을 마주하고 대치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면서 공동 안보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근대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변화와 외국인 노동력 유입 등으로 국가 내 사회적 갈등이 높아진 점도 걸프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협력체의 필요성을 고조시켰다. 이에 1981년 초에 개최된 “이슬람회의 기구” 정상회담에서 걸프지역 국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결의되었고, 이어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Riyadh)에서 열린 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걸프협력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헌장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5월에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오만 정상들은 걸프협력위원회(GCC)를 결성하는데 동의하였다.¹⁰⁾ 이 에 6개국은 회원국 간의 단결

10) 기구의 공식 명칭은 걸프 아랍국 협력체(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이다. 이들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종교적·문화적으로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GCC 결성에 또 다른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unity)을 위해 모든 분야에 있어 상호 조정과 통합, 내부 결속을 위한 협력체제(cooperative framework)를 구축하기로 하고, 1981년 11월 리야드에서 회원국 간의 통일경제협약(unified economic agreement)을 체결하여 회원국 간에 사람 및 자본의 자유이동과 관세철폐, 은행과 금융제도의 조화, 회원국 간 기술협력 향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설립된 걸프협력위원회의 목적은 그 헌장(Charter)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전 분야에 있어 회원국 간에 상호조정과 통합, 내부결속을 촉진하고, 회원국 국민들 간에 결속을 강화하며, 경제·재정·무역·관세·관광·법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동물자원(animal resources)과 수자원, 농업 및 광업, 산업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과학연구센터 및 합작기업(joint ventures)을 설립하고, 민간분야(private sector)에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GCC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GCC의 조직을 살펴보면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최고위원회(the supreme council)가 있다. 최고위원회 의장은 회원국 국가 이름 알파벳순으로 말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하고, 회원국들의 특별요청과 재청이 있으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¹¹⁾. 각 회원국은 한 표씩 행사하며 회원국 중 2/3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요한 이슈들은 만장일치로 하고, 절차적 성격을 가진 이슈들은 다수결로도 충분하도록 했다. 최고위원회와 관련해서 조정위원회(The Conciliation Commission)가 있는데, 각 개개인의 경험과 지난 3년간의 업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발한 30명의 GCC 회원국 전문가(각 국가별로 5명씩)들로 구성되며, 회원국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의해 의뢰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자문한다. 분쟁해결위원회(Commiss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분쟁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례별로 구성된다. 두 번째 기구는 각료이사회(The Ministerial Council)인데 주로 각 회원국의 관련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며, 각료이사회 의장은 이전에 최고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국가에서 맡는다.¹²⁾ 각료이사

11) 1998년에 개최된 19차 정상회담 때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매년 열리는 정상회담 사이에 심의 회의(consultative meeting)를 별도로 가지기로 했다.

12) 하지만 필요하면 다음 최고위원회 의장을 맡을 국가의 외무장관이 맡기도 한다.

회는 3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다른 회원국의 재청이 있으면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모임도 회원국의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료이사회는 GCC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권고안을 만들며, 모든 분야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추진하고, 상호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각료이사회는 또한 최고위원회의 회의 및 의제를 준비하는 일도 맡는다. 투표절차와 통과 기준은 최고위원회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사무국(the Secretariate-General)이 있는데 사무국은 상호협력, 상호조정, 통합계획 및 공동작업(joint work)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를 한다. 또한 GCC의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준비하고, 결의(Resolution)에 대한 이행을 감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이슈에 대해 연구와 보고서도 준비하며, 각료이사회를 위한 의제와 결의초안(Resolution draft) 및 회의도 준비한다. 사무국 직원들은 한번 연장이 가능한 3년 임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정치, 경제, 인류(human)와 환경, 안보 그리고 군사업무 등 5개 분야에 보조사무원을 두고 있다.

GCC가 결성된 후 최고위원회(the Supreme Council)는 GCC의 발전을 가져오는 공동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었다. 협정체결 당시 관세동맹의 완성 시기를 1986년까지로 확정한 것이나, 1981년의 경제협약(Economic Agreement), 1982년 경제통합협정¹³⁾ 조인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의(Resolution)는 GCC의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통합의 발전 및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결의를 뒷받침하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는 1999년에 개최된 20차 정상회담에서 1981년에 체결했던 경제협약(Economic Agreement)을 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최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여러 번 수정을 거친 계획안을 제출했고, 2001년 12월 22차 회기 기간에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¹⁴⁾ 이 새로운 협정은 회원국 간에 상호협력과 상호조정 뿐

13) 경제통합협정은 총 7장, 28조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국 간 경제활동에 관한 조정, 조화 및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동 협정은 제1조-제7조는 무역에 관한 조항으로 역내 생산물의 이동에 대한 관세 철폐 및 대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의 통일을 규정하고, 제8조-제9조는 자본, 노동, 거주자의 자유, 소유 상속 유산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및 자본 이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개발에 관한 상호 조정에 관한 조항은 제10조-제13조에, 기술협력에 관한 조항은 제14조-제17조에, 운수 및 통신에 관한 조항은 제18조-제20조에, 재정 및 금융협력에 관한 조항은 제21조-제23조에 그리고 보칙(補則)이은 제24조-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14) 새로운 협정의 제1장에는 관세동맹, 제2장은 공동시장, 제3장은 경제통화동맹, 4장은 통합의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도 채택하고, 실제로 회원국들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해 GCC가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업무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다.

2002년 카타르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23차 회기에서는 GCC 내 관세동맹을 2003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03년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s)가 5%로 정해졌다. 관세는 GCC국 중 처음에 수입되는 국가에서 징수하기로 하고, 관세수입은 상품의 최종목적지에 따라 회원국 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 GCC내 통화동맹(Monetary Union)을 창설하기위한 상당히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2000년 바레인(Bahrain) 회의에서 최고위원회는 GCC에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실무계획(working plan)과 일정표를 만드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GCC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ies)은 통화동맹(MU) 가입에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통화동맹 설립 전·후로 정책평가에 기준이 되는 경제수렴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를 2006년 12월 리야드(Riyadh)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승인하였다. 승인된 경제수렴 조건은 EU가 유로(Euro)를 도입할 때 설정했던 기준과 매우 비슷하며,¹⁵⁾ 이 기준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그 후 2008년 1월에는 GCC 공동시장이 출범했다. 이에 GCC 회원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들 모두 단일국가 국민으로 대우하기로 하고, 그를 위해 회원국 간의 투자 및 서비스 교역에 모든 장벽을 제거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관세동맹 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들도 계속 늦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단일 통화 도입 일정도 다소 늦추어질 것 같다¹⁶⁾.

GCC는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 외에도 비회원국과 FTA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90년 EU를 처음으로 2004년 중국, 2006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

발전, 5장은 인적자원개발, 6장은 과학 및 기술연구 분야의 상호협력, 7장은 운송, 통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8장에는 시행하는 제도와 추진하는(follow-up) 방법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5) 그 내용은 GDP에 대한 예산적자(Budget deficit) 최고비율을 3% 이내로 하며, 재정적자는 GDP의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최저 인플레이션을 3개국 평균값의 2%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자율도 최저이자율 3개국 평균 이자율에 2%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16) Ibrahim,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ulf : Issues in the economies of the Arab Gulf co-operation council stat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7) pp.7-8.

2007년에는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과는 GCC 단위가 아닌 개별국가별로 FTA를 추진해 바레인과는 2004년 9월, 오만과는 2005년 10월에 FTA 체결을 했고, 레바논과는 2006년 7월부터 FTA 협상이 발효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호주, 싱가포르와 GCC 회원국들 간에 개별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회원국 간에 내부갈등이 심화되자 2005년 12월 아부다비(Abu Dhabi)에서 개최된 GCC 6개국 금융장관회의에서 이 후부터 FTA 체결 시 역외국과의 협상은 모두 GCC 단위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¹⁷⁾.

GCC는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안보분야와 관련된 이슈도 많이 다루었으며, 1991년 GCC 국가들은 이집트, 시리아와 함께 지역평화유지 군대(regional peace keeping force)를 창설하고, 아랍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하여 쿠웨이트를 지원하는데 쓰기도 했다. 또한 2000년에는 외부국가로부터의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 방위군(the Peninsula Shield Force)을 5,000명에서 20,000명으로 늘였다. 또한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바하마) 뿐 아니라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분쟁(아랍 에미리트와 이란)을 중재하기도 했다.

현재 GCC 국가들은 경제가 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세계 원유 생산의 20%,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45%,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수입이 바레인인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의 GDP에 40% 이상을 차지한다.¹⁸⁾ 수출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으며, 석유는 또한 정부활동의 주요 원동력이며, 민간부문 지출을 지원하는 주요 공급원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부문의 발전이 다른 경제부문과 거의 연관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CC회원국들도 1990년대부터 민영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 구조적 발전의 불균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¹⁹⁾

회원국 확대도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예멘이 1996년부터 GCC에 회원국가입을 추

17) 황주성, “FTA 정책을 둘러싼 GCC 내부의 갈등과 최근 동향,” 『KIEP 세계경제』(2006년 2월호) p. 62.

18) 바레인은 25% 정도 기여한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 석유의 GDP 기여도는 1976년 당시에는 65% 이상을 기록했다.

19) Ibrahim,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ulf : Issues in the economies of the Arab Gulf co-operation council stat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7) p.1.

구하여 1999년 1월부터 공식 지원국이 되어 2016년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GCC 회원국 중에는 예멘이 빈곤하고, 인구도 많으며, 경제 및 정치체제도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국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회원국이 있으며, 인접한 아랍 국가들의 회원국 영입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IV. 아랍 협력 위원회(ACC)

아랍 협력위원회(ACC: Arab Cooperation Council)는 현재 조직적인 활동은 멈추어져 있지만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1억 4천 4백만 명이고, 면적은 2,061,035Km², 총 GDP는 6천 17억 달러, 1인당 GDP는 4,170달러 정도 되는 공동체이다.²⁰⁾

1983년 3월 걸프 지역 국가들이 걸프 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를 출범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자 GCC에서 제외된 요르단·이라크·북예멘 3 국은 새롭게 아랍 국가들과 결속을 추구하는 이집트와 함께 1989년 2월 16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아랍 협력위원회(ACC)를 출범시켰다.

이날 조인된 아랍 협력위원회(ACC)의 헌장 1조에는 협력위원회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데, ACC를 “아랍연맹” 기구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아랍 및 국제지역 그룹들과 상호협력 관계를 수립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ACC의 목적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는 첫째, 회원국 간에 높은 수준의 상호 조정·협력·통합·단결을 달성하고,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문적 지식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며, 둘째, 여러 생산부문 단계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이루고,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해 감에 따라 회원국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 성장률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발전 계획을 상호 조정하고,²¹⁾ 셋째, 공공 및 민간, 공동과

20) 실제로 북예멘이 1990년 남예멘과 통일하여 예멘공화국으로 됨으로써 이 통계는 북예멘 대신 예멘 전체를 고려한 자료임(EL-Kuwaiz “Economic Integration of the GCC: Challenges, Achievements and Future Outlook,” *American-Arab Affairs*(Washington, Issue 19, 1986, p.28)

21) 특히 ① 경제 및 금융, ② 공업 및 농업 ③ 운송 및 통신 ④ 교육, 문화, 정보, 과학 연구 및 기술, ⑤ 사회적 문제, 보건 및 관광 ⑥ 노동, 여행 및 거주 정비 등의 분야에 있어 바람직한 통합

혼합 부문 간의 경제협력과 합작기업 및 투자를 장려하고, 넷째, 아랍공동시장과 아랍 경제동맹의 설립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로써 회원국 간에 공동시장 설립을 추구하고, 다섯째, 모든 분야에 있어 회원국 국민들 간의 유대 및 단결을 강화하고, 여섯째, 아랍의 결속 강화를 위해 아랍의 공동 활동을 촉진 및 발전시키는 것이다.²²⁾

ACC 조직은 크게 3개의 기구로 구성되었는데 최고기구, 각료기구, 그리고 사무국이 다.

최고기구(the Supreme Body)는 회원국 간의 정상회담으로 각국의 수반들로 구성되며, 회원국들이 교대로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국이 1년 동안 최고기구 의장이 된다. 별도의 회의는 최고기구 의장이 제안하거나 회원국 1개국이 요청하고 최소한 다른 1개국의 재청이 있으면 소집하는데, 이 회의는 최고기구 의장이 속한 국가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최고기구 회의는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최고기구에서는 ①ACC의 최고 정책을 기획하고, ②각료기구에서 올라온 권고안들과 관련해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고, ③협회의 업무와 권한 내에 있는 문제들을 각료기구에 위임하고, ④ACC의 운영절차 규정을 승인 및 개정하고, ⑤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고, ⑥새로운 회원국 가입을 승낙하고 ⑦ACC 설립 협약을 수정하고, ⑧상호조정, 협력, 통합을 위해 합의된 절차의 진행 상태를 검토하고, ⑨필요하면 다른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설립한다²³⁾.

각료기구(the Ministerial Body)는 회원국 수반이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리자들로 구성된다. 각료기구는 최고기구 의장이 속한 국가에서 매 6개월에 1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그 국가의 수상이나 그 국가에서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별도의 회담은 각료기구의 의장이나 한 국가가 요청하고 최소한 다른 회원국 1개국이 재청함으로써 개최될 수 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각료기구가 수행하는 업무는 ①ACC와 관련된 문제나 업무(affairs)에 관해 연구하고, ②ACC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된 권고안과 계획(plan), 기획안(proposal) 들을 최고기구에 제출하고, ③최고기구

과 상호 조정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2) ACC,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Article 2 (1989)

23) ACC,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Article 6 - Article 8 (1989)

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행 수단을 채택하고, ④적합한 기획안을 검토하고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상호협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⑤ACC의 운영절차를 준비하고, 승인을 위해 최고기구에 올리고, 개정안을 발의하며, ⑥사무국의 재정 및 행정적 규정의 수정 및 승인과 ⑦ACC 업무와 관련된 사무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⑧사무국 예산의 검토 및 승인, 사무국의 재무회계와 사무국의 최종 재정 및 행정 상태를 승인하고, ⑨ACC 업무로 인해 요청을 받으면 임시위원회를 만들고, 10) 최고기구의 의제 초안을 준비하는 것 등이다²⁴⁾.

사무국(the General Secretariate)은 본부를 요르단 암만에 설치하고, 사무총장과 필요에 따라 소수의 사무국 직원을 둔다. 최고기구는 ACC의 목적을 고려해 회원국 국민 중에서 개인적인 신뢰와 능력을 심사해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최고 두 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사무국 직원도 최고기구에서 개인적인 신뢰와 능력에 따라 회원국 국민 중에서 채용한다. 사무총장과 그의 임원들은 사무국이 설치된 국가나 회원국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세 및 면책특권을 가지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ACC 사무국 실행부서의 수뇌로서 사무국 업무가 적절히 잘 수행되도록 할 직접적 책임을 가진다. 또한 사무총장은 ①최고 기구와 각료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②두 기구에 제출하기 위해 ACC 업무에 관련된 필요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③각료기구의 의제 초안도 준비하고, ④ACC의 예산 초안과 최종회계를 준비하며, ⑤사무국의 행정 및 재정상의 규정을 발의하고, 그것을 각료기구에 제출하며, ⑥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⑦최고기구와 각료기구에서 위임한 다른 업무도 수행한다.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이 동일하게 출연한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다.²⁵⁾

그리고 회원 가입이나 ACC 설립협약의 수정, 의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과 ACC 창설협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지만, 그 결정 사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고 탄생한 ACC는 이미 출범한 GCC와 함께 아랍지역에 새

24) ACC,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Article 9 – Article 11 (1989)

25) ACC,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Article 13 – Article 16 (1989)

로운 지역통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게 해주었다. 많은 학자들도 아랍지역의 오랜 이념적 분쟁과 아랍 내 세력다툼이 끝나고, 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 아랍지역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예상했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ACC도 회원국 간에는 많은 정치·경제적 상호협력을 위한 실제적 진전들을 이루었고, 아랍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동태성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ACC 초기에는 동맹체 자체가 ACC 현장에 방위적 상호협력 보다는 아랍내부의 경제적 단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왜냐하면 4개 회원국 모두 ACC 서명 당시 상당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을 때였고, 1980년대 오일가격의 하락으로 회원국 모두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트와 요르단, 북예멘은 걸프지역 노동시장에 의존성이 크고,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송금에 많이 의존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석유경제 위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ACC 결성 목적 중에는 회원국 간의 노동 흐름을 촉진시키고, 특히 요르단과 이집트의 노동을 이란과 8년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ACC 첫 정상모임에서도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회원국 간에 입국 비자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이동을 수월하게 만드는데 합의를 하였고, 나아가 다른 회원국 노동자들보다 회원국 노동자들에게 채용시 더 많은 우선권을 주기로 했었다. 더불어 아랍내부의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ACC가 공동시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나아가 회원국이 지고 있던 대외채무(debt)를 제공한 국가나 국제기구에 동맹체 전체가 하나가되어 재협상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ACC국가의 단결이 강화되었지만, ACC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원국들 간에 다른 시각이 존재했었다.²⁶⁾ 요르단은 ACC를 정치·경제적 블록으로 보고, 나중에 폭넓게 확대된 지역동맹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멘도 요르단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동맹 내 두 강대국에 있었다. 이라크는 ACC를 정치화하려고 시도했었고, 특히 시리아에 대한 적대세력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집트는 이러한 생각에 강력히 반대하여, 이라크와 정치적, 안보적인 연대를 피하고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려고 했다. 그리고

26) Ryan, *Inter-Arab Alliances : Regime Security and Jordanian Foreign Policy*,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8), pp.388-389.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걸프전(Gulf War)에서 회원국들의 대응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요르단과 예멘은 이라크 편에 선 반면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연합해 다국적 편에 섰고, 이에 따라 ACC내 가장 강력한 두 회원국이 하루 밤 사이에 동맹자에서 군사적 적대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쟁의 포성이 멈추었을 때 ACC 현장의 갱신 마감 날이 다가왔지만 누구 하나 추진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ACC는 회원국들의 분열과 함께 조용히 활동을 멈추었다.

V. 결론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은 결성 초기 역내 회원국 간의 경제력 및 군사력 차이, 인도와 파카스탄 간의 대립 등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협력체로서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무역과 투자 분야, 빈곤 경감, 식량 확보 같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또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 더구나 회원국들 간에 특혜무역협정(SAPTA)과 자유무역지대(SAFTA)를 결성하고, 최근에는 남아시아 지역 경제를 하나로 묶는 남아시아 경제연합(South Asian Economic Union)까지 추진함으로써, 일부학자들(Khosla, 2007, p. 57, Muni, 2008, p.15)이 ASEAN이나 이웃의 GCC와 비교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진보와 성숙성(maturity) 측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SAARC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인도-파키스탄간의 적대감도 다소 누그러들어 연합체의 미래 발전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SAARC는 아프가니스탄을 회원국으로 포함시켜 회원국 수를 확대시켰으며, 지역 외부에도 새로운 움직임들에게 공간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델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중국, 미국, EU, 일본, 한국, 이란이 옵저버로 참가했고, 특히 중국은 SAARC 회원국들과 빠른 속도로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접근에 대응해 미국, EU, 일본 및 한국도 SAARC를 통해 지역 내 경

제적,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에는 이란과 중국, 미얀마 3개국이 SAARC 회원국으로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란과 중국은 이미 옵저버 자격을 획득해 활동하고 있다. 미얀마는 당장 SAARC 회원국이 되는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ASEAN이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이슈를 강조한 'ASEAN 현장'을 채택한 후 ASEAN과의 관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용한 다른 기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와 미얀마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미얀마와 남아시아 지역국가 간의 경제적 연대 관심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아랍지역의 경우 경제협력 구상 자체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랍 연맹(Arab League)²⁷⁾이 1950년 “상호 방위 및 경제 협력 조약”을 체결할 때 아랍 경제위원회(AEC)를 설립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또한 1957년에는 EEC의 로마조약 결성에 대한 대응으로 아랍 공동시장 설립을 결정하기도 했다. 1964년 설립된 아랍경제통합위원회(CAUE)에서는 관세인하, 자유무역 지대의 발전, 역내 아랍 투자의 유인, 노동의 자유 이동, 산업의 합리화 등을 통한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을 추진했었다. 이러한 아랍경제통합위원회(CAUE)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973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아랍 연맹 회원국이 참여하여 아랍 역내의 경제 협력을 주도하였다. 그 후 1980년대 들어 아랍지역에 GCC, ACC 2개의 경제 협력 기구가 생겨났다. 그 중 ACC는 걸프 협력위원회의 결성에 따른 지역적 위기감에 의해 그에 대응하는 세력 구축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ACC 현장 내에는 어떠한 공식적 방위조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ACC형성 자체로 지역 내에서 비회원국들에게 잠재적 공격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위협적인 블록이 되었다. ACC 회원국들도 이러한 시각을 우려하여 주변국들의 의심과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맹의 경제적 측면을 매년 강조하였고,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의도도 부정했다. 그러나 1989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된 ACC 최고기구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공동방위동맹을 설립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주변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국가에 국가 방위에 우려를 확대시켰다. 이에 ACC는 GCC나 AMU 같은 다

27) 아랍연맹은 1945년 3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중동의 평화와 안전, 아랍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한다는 기치아래 결성한 연맹으로 현재는 22개국이 가입해있다.

른 아랍지역 기구와는 달리 자신들은 원하면 모든 아랍 회원국가에 개방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국은 걸프전이 발발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ACC 회원국들은 서로가 정치적 결속보다는 오히려 분열됨으로써 걸프전 이후 통합체의 활동이 정지되고, 그동안의 모든 협약사항도 단지 종이위에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ACC의 단명으로 우리가 아랍지역에서의 동맹체는 자체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단결과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아랍지역 결성체인 GCC는 걸프전쟁 이후에도 잘 발전되어 왔고 아랍 내에서 충분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GCC 6개국은 경제 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도입하는 등 회원국 간에 협력을 통해 현재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단일통화 도입에 의한 통화동맹(Monetary Union)까지 추구하고 있다. GCC가 이렇게 순조롭게 경제통합과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은 회원국들 간에 정치·종교·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고, 서로 간에 큰 갈등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가 석유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 지속적으로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그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동맹체의 발전 정도가 결정 될 것이다. 회원국 확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데, 예멘이 가입을 원하고 오만과 카타르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해서 가입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GCC 회원국들로부터 국내 전체 원유 수입량의 67% 이상을 수입해 오는 주요 지역인 만큼 이 지역 국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특히 2007년 3월 노무현대통령 중동 방문 시 FTA 추진에 합의 한 후 2008년 7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2009년 7월 3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만일 이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공산품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확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 등 각종사업에 진출을 늘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측면에서도 GCC산 원유가스 관세도 궁극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미국, EU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보다 한발 먼저 이 지역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SAARC에 회원국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GCC와 비즈니스 밀접도도 강하며, 자국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GCC지역에 빈번히 통상사절단을 급파하고 원유사

업에도 진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통상강화를 하고 있다. 일본도 이미 1988년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 25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관계를 맺었고(Kuroda, 1989, p.28), 우리보다 2년 앞선 2006년부터 GCC와 FTA 체결을 위해 접촉해오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가 있는 이들 국가들이 GCC와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이 지역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종상품인 자동차, 철강, 전자, 섬유제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 그 동안 경쟁국들에 비해 뒤져있던 교류와 연대관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심의섭(2004). “중동경제현안과 한국과 중동의 경제협력.” 『중동연구』, 제 23권 1호, 183-212.
- 이건우(1989). 『GCC 經濟統合의 成果와 展望』, 산업연구원.
- 황주성(2006). “FTA 정책을 둘러싼 GCC 내부의 갈등과 최근 동향.” 『KIEP 세계경제』 2006년 2월호, 57-64.
- Abadi, Jacob(1994). “The Gulf War and its Implications for Israel”.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XVII, No. 3, 55-77.
- ACC(1989).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February 16, 1989, Baghdad.
- As'ad Abukhalil et al(2005). *The Middle East*, 10th ed, CQ press, Washington D.C.
- Anil Bhumali and Chandan Kumar Mukhopndhyay, 2008. *SAARC Perspective*, Serials Publications, New Delhi.
- Bhan, Pankaj(2007). “SAARC: Reflecting Upon the Past.”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 – The Road Ahead*,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7-48.
- Bhan, Pankaj and R.N. Srivastava(2008). “SAARC: Evolutionary Cycle of Growth and Consolidation.”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9-42.
- Brand, Laurie A.(1994). *Jordan's Inter-Arab Relations : The Political Economy of Alliance Making*,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kraborty, Debashis and Debdeep De(2008). “Trade Performance and Integration Experience of SAFTA: A Review of Issues.”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5-62.

- Christie, John(1986).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 A Brief Overview." *American-Arab Affairs*, Issue, 18, Washington, 1-13.
- Cleveland, William L(2009). *A his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Boulder, CO: Western Press.
- CUTS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2004). *Economics & Environment, 2004, Agreement on SAFTA : Is it win-win for all SAARC countries ?*, CUTS.
- Dralonge, Richard N.(2008). *Economics and Geopolitics of the Middle East*, Nova Science Publishers, Inc., New York.
- EL-Kuwaiz, Abdullah Ibrahim(1986). "Economic Integration of the GCC: Challenges, Achievements and Future Outlook," *American-Arab Affairs*, Washington, Issue 19, 28-37.
- GCC(1985). "The Unified Economic Agreement,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American-Arab Affairs*, Washington, Issue 15, Dec. 31, 1985, 107-111.
- Hussain, Ross Masood(1999). "SAARC 1985-1995: A Review and Analysis of Progress." in Eric Gonsalves and Nancy Jetly ed., *The Dynamics of South Asia: Regional Cooperation and SAARC*, Saga publications, New Delhi.
- Ig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2007). *SAARC-The Road Ahead*,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Ig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2008). *SAAR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adhim, Mihassen(1992). "Japan and the Arab World: An Essay in Comparative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 Studies*, Vol.XV, No.3, Spring 1992, 72.
- Khosla, I.P.(2007). "Economic Cooperation in South Asia."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The Road Ahead*,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9-84.
- Kuroda, Yasumasa(1989). "Japan, The Arab World and Israel." *American-Arab Affairs*, Washington, March, 31, 1989, Issue 28, 9-21.
- Ibrahim, Badr Ei Din A.(2007).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ulf : Issues in the economies of the Arab Gulf co-operation council stat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Longrigg, Stephen Hemsley(2009) *The geography of the Middle East*, New Brunswick,
- Louise Fawcett(2009).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hammad Azhr(2002). *Aspect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States*, Academy of Third World Studies, Jamia Millia Islamia, New Delhi.
- Mukherji(2007). "SAFTA: Adressing the Unfinished Agenda."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The Road Ahead*,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9-84.
- Muni, S.,D.(2008). "SAARC: Changing Dimensions." in Iqbal Ahmed Saradgi, S. K. Sahmi, and R. N. Srivastava ed, *SAAR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5-28.
- MVIRDC World Trade Centre(2001).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 Retrospect and Prospects*, Mumbai.
- Rahman, S. M.(2001). *SAARC: In the New Millennium*, A Friends' Publication Pakistan,
- Ryan, Curtis R.(1998). "Jordan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rab Cooperation

- Council.” *The Middle East Journal*, Vol.52, No.3, Middle East Institute, 386–401.
- Ryan, Curtis R.(2009). *Inter–Arab Alliances : Regime Security and Jordanian Foreign Policy*.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1985). *Charter of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Dhaka.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1988). *From SARC to SAARC: Milestones in the Evolu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 Asia 1980–1988*, Vol. I, II, III, the Secretariate of SAARC, Kathmandu.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2001) *SAARC–A Profile*. Information and Publication Division, SAARC Secretariat, Kathmandu.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2005). *Declarations of SAARC Summits, 1985–2004*, Kathmandu, Nepal.
- Terrill, W. Andrew(1986). “Saddam’s Closest Ally: Jordan and the Gulf War.”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9, No.2 (Winter), 43–54.
-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1983). *The Unified Economic Agreement*, Riyadh, 1983.3.1
- Wahby, Mohammad(1989). “The Arab Cooperation Council and the Arab Political Order.” *American–Arab Affairs*, Issue 28, Spring, Washington D. C., 60–67.
- Walt, Stephen M.(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ttp://www.saarc-sec.org/main.php>
- <http://www.koafs.or.kr/>
- <http://www.en.wikipedia.org/wiki>

A Study on the Economic Integration Bodies of the West and the South Asian Region

Jeong, Hong-Yul

One of the major economic developing strategies,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can take, is economic integration with neighbor countries. Especially, the South - South Cooperation as part of a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had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s among the under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ring the 1960's, 1970's, and 1980's. The CACM, LEFTA, ASEAN, Caribbean Free Trade Agreement, and Central Africa Economic and Custom Union were good example in this context.

Korea had stood apart from this trend for a good while and pursued its own development policies after Korean War. Since it had signed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le in 2002, however, it had changed its economic growth strategies dramatically and started to propulse economic integration with multi-countries simultaneously. In accordance with this alteration, scholarly attention had also leaned to the same direction and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undertaken. But most of those studies are concentrated on a few major economic integration bodies.

In this respects, here, I study on the South and the We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stitutions which don't attract much attentions in my countries so far. Those are SAARC, GCC and ACC, and from relatively humble beginnings, SAARC and GCC have gradually been extending those scope of operations to cover newer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activities. In section II, III, IV, I

exam the backgrounds of establishment, contents of Treaty and evolution of those bodies. In conclusion section, I will address the feature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ose bodies. The Issu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ose, and New strategies for better cooperation are also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걸프협력위원회(GCC), 아랍협력위원회(ACC), 경제 통합체, 경제통화동맹

SAARC, GCC, ACC, Economic Integration institutio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